

<h1>보도자료</h1> <p>2023. 6. 7.</p>		<h2>양형위원회</h2>
	<p>문의</p>	<p>운영지원단장 범선윤 (☎ 031-920-5601)</p>

양형연구회 제10차 심포지엄 『AI와 양형』 6/26 (월)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

■ 개요

- 양형위원회(위원장 이상원) 산하 양형연구회(회장 이주원)는 2023. 6. 26. (월) 14:00, 대법원 대강당에서 『AI와 양형』을 주제로 제10차 심포지엄을 개최함
-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‘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’ 및 ‘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범감정 수렴’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

■ 추진 배경

- 제1세션: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
 - 양형위원회가 임기 초 설정·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하면, 양형기준은 [양형자료 조사·분석]으로부터 [양형기준 공개]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밟아 만들어짐

단 계	주 체	내 용
-----	-----	-----

1	양형자료 조사·분석	운영지원단	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확정기록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및 분석
↓			
2	양형기준 초안 작성	전문위원	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
↓			
3	양형기준안 의결	위원회	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 마련
↓			
4	공청회 및 의견조회	위원회	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와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진행
↓			
5	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	위원회	공청회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하여 양형기준 확정
↓			
6	양형기준 공개	위원회	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은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

- 법령 제·개정 또는 국민적 요청 등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·분석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

⇒ 양형자료조사 및 통계 분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,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

⇒ 양형 데이터의 수집, 분석, 관리 및 시각화는 사법부에서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

- AI를 이용하여 양형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 모색 ⇒ 사법접근성 강화 및 사법부 신뢰 제고

○ 제2세션: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

- 양형위원회의 목적은,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 것임(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)

-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공청회 개최, 관계기관 의견 조희 실시,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
-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 수렴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⇨ AI를 이용하여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법인식을 수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
-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도 2023. 5. 9. 출범식에서 “양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,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.”고 발언한 바 있음

■ 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23. 6. 26. (월) 14:00~18:00
- 장소: 대법원 대강당

■ 세부 일정: 첨부 포스터 참조

■ 참가신청

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(031-920-5605, 031-920-5606)